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7월 3일
제1903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그때에 주님께서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루카 10,1-3)



〈He sent them out two by two〉, James Tissot

연중 제14주일 (다해)

제 1 독서 이사 66,10-14ㄷ |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화답송 시편 66(65) |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 2 독서 갈라 6,14-18 |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음 루카 10,1-12.17-20 <또는 루카 10,1-9> |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 그때에¹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 ²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 ³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 ⁴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 ⁵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 ⁶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 ⁷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 ⁸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 ⁹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 ¹⁰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길에 나가 말하여라.
- ¹¹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 ¹²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 ¹⁷ 일흔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 ¹⁸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 ¹⁹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 ²⁰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복음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일흔두 제자를 지명하시어 당신께서 가시려는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사제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힘겨울 때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효율면에서나, 신자들에게 주는 부담의 차원에서나 혼자나 낫지 않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둘씩 짝지어 보내신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는 심부름꾼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거나, 마술사처럼 그럴듯한 기적을 보여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동료와 나누는 관계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군중은 제자들의 행동과 말투뿐 아니라 그 둘이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느낍니다. 혼자 있을 때는 빛이 나지만 둘이 있을 때 빛을 내지 못한다면, 기적을 일으키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함께 살아가는 모습에서 활력과 생명력이 넘친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더 큰 진정성을 얻게 됩니다. 복음은 화려한 말이나 신기한 행동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일상의 작은 사랑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인 옆에 순교자 나고, 신심 깊은 부인 옆에 냉담한 남편이, 열심인 사제와 수도자 옆에 빈자리만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부부와 동료, 본당 공동체 모두 저마다 함께 묶여 파견된 제자임을 기억합시다. <김인호 루카 신부>

2022 WorkCamp June 19-24, 2022



8 teens from St. Paul Chung, 3 Adult Crew Leaders, and 2 Contractors had a successful WorkCamp. WorkCamp is a program hosted by the diocese where this year around 650 teens came to serve the less fortunate within our diocese to be safer, drier, warmer. There they worked in projects such as roofing, decking, and flooring during the mornings and in the evenings had fun with programs filled with praising, listening to testimonies, playing human version of Angry Birds and other games. As a stakeholder, I couldn't be more proud for our teens, who gave up their day to day life filled with comfort to help others in need.

I could see Christ in our teens and the teens showed that they were sharing God's love. It was truly fitting for this year's theme of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1Cor 11:24.

WorkCamp 참가자(학생)

Matthew Han, Jeffery Pak, Rachel Lee, Hyunil Choi, Francis Soonmin Kwon, Jaime Haeun Kwon, Willam Eun Park, Minseo Kim, Adam Christopher Hwang

Camp Crew Leader/Contractor(성인)

Jennifer Hwang, Kunhee Koh, Yongwoo Stephano Kwon, Andrew Oh, Chongho Cho, Dongchul Kang

YONG WOO KWON

Stakeholder / Adult Crew Leader





WILLIAM PARK

rising 11th grade

Before WorkCamp, I was just a Sunday regular. I showed up for mass every Sunday but I didn't get anything out of it. WorkCamp greatly opened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gave me a sense that I have great worth and that he cares for me very much.

It also gave me a sense of how grateful I should be for all the blessings I have in my life that others do not have. Definitely an **eye opening experience** and something I will come back to next year.



FRANCIS CHOI

rising 11th grade



Kevin Henkes once said, *"Sometimes all you can say is, 'Wow'."* That is the quote I would use to describe my Work Camp experience. Words can not describe the feelings and experience I had. From the happiness of helping the needy, the emotional praising and adoration, to the secret party in the boys showers, Work Camp is probably going to have to be the highlight of my Summer.

CYO consists of around 20 students; out of those 20 students, only around seven of the 20 from our parish participated in the 2022. While 13 of my peers were at home with hot showers, comfy beds, tasty meals, and technology, I was out and working in the blazing sun and thunderstorms. Even so, I had not a single hint of jealousy within me during workcamp. **Even though I was going through such hardships and uncomfortable situations, I found joy in what I was doing.** Due to the fact that our parish only had seven people participating, we all drove to workcamp in two vans while other parishes were coming in buses. Something that I really thought a lot about was how little presence our parish has compared to other churches at the camp. Something I want to see next year during workcamp is to see more people from our church; I want others to feel what I did this past week.

1 7주간의 여름 성경 특강

- 기간 : 7월 6일(수) - 8월 17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8:30
- 내용 : 인본 중심으로 한 성경 이야기(7강의)
- 강사 :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님
- 문의 : 교육부장 (571) 275-0691
- 강의 일정과 제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세요.

2 전신자 연중 특강

- 주제 : "회복의 삶"
- 일시 : 7월 10일(일) 오후 1시 - 오후 3:30 (천교실)
- 강사 : 김태광(아우구스티노) 신부님 (팔로티회)
- 문의 : 교육부장 (571) 275-0691

3 7월 구역봉사자 교육,단체부 월례회의는 쉽니다.

4 유아세례

- 일시 : 7월 9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7월 10일(일) 오후 1시 (B-3,4)

6 CYO 성가대원, 피아노 반주자 모집

- 미사 중 노래할 성가대원과 피아노 반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6th-12th 대상)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7 알링턴 교구 주교 집전 다민족 미사

교구내 다민족들이 교구장 주교님을 모시고 미사와 행사를 합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15일(금) 오후 7시
- 장소 : Our Lady of Good Counsel Catholic Church (8601 Wolftrap Rd SE, Vienna, VA 22182)
- 문의 : (703) 841-3881

8 수녀님 연피정 안내

- 이 스텔라 수녀님 : 7월 7일(목) - 7월 15일(금)
- 안 다니엘 수녀님 : 7월 26일(화) - 8월 3일(수)
- 수녀님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9 주일학교 등록 안내 (K -12th)

- 2022 - 2023 주일학교 등록을 성당 로비에서 받습니다.
- 등록 기간 : 7월 10일(일) - 7월 31일(일) 2시 미사 전·후
- 등록비 : 한 자녀 - \$100 / 한 가정 두 자녀- \$18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 \$200
- 문의 : 윤정보일 (703) 371-3589

10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영명축일을 맞으시는 김태진 주임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 베네딕토 영명축일(7월 11일)을 맞으시는 김태진 주임신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의 의무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교회법」 1247조).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날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 복사기 사용 ◇

▶ 복사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복사기 사용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노인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사랑의 모든이해를
뚜어넘는
하느님의 표징화가
여러분의 기쁨과 사랑을
그리스도예수님안에서
지켜줄것입니다
팔리4. 9



(바오로말 콘멘츠)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6월 26일(연중 제13주일)

주일 헌금	\$ 6,257.00
교무금	\$ 7,425.00
교무금(신용카드)	\$ 3,930.00
2차 헌금	\$ 2,917.00
감사 헌금	\$ 2,020.00
온라인 봉헌	\$ 1,340.00
합계	\$ 23,88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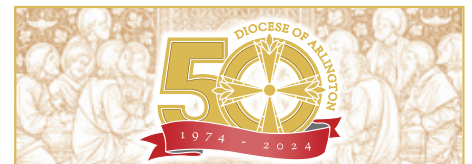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7월 7일(목) 오후 5:00-6:00
- 7월 8일(금) 저녁 8:00-9:00
- 7월 10일(일) 오전 6:00-7:00

- 성 정바로 성당 주일 미사 강론
- 윤원진 신부의 위대한 성인들 :
- "아브라함" (2)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